

# 국가장서개발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 호주, 네덜란드, 한국을 중심으로 -

## A Comparative Study of the Nationa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in Australia, Netherlands and South Korea

유 종 연 (Jongyon Ryu)\*

정 연 경 (Yeon-Kyoung Chung)\*\*

### 목 차

- |                      |                         |
|----------------------|-------------------------|
| 1. 서 론               | 4. 비교 및 주요 시사점          |
| 2. 장서개발정책 및 지침의 구성요소 | 5.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개선방향 |
| 3. 장서개발정책 사례조사       | 6. 결 론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호주와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국가장서개발정책의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호주와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사명과, 책무, 조직과 인력, 예산과 장서, 장서개발정책의 기본 방향과 원칙, 수집우선순위, 보존과 디지털화, 납본 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호주국립도서관과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의 국가장서개발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NED 온라인납본시스템이나 e-Depot 디지털 저장과 소셜 미디어에 대한 수집정책의 변화를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국의 국가장서개발에 있어서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장서개발정책에 개선해야 할 부분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of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and the 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in the future.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of these national libraries were analyzed with a focus on mission and responsibility, organization and personnel, budget and collection statistics, basic directions and principles of collection development, collection priorities, preservation and digitization, and deposit. The most special aspects of the national collection development of Australia and Netherlands were the trial of the new ways to change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es of NED online deposit system and the social media in line with the flow of the digital era and their own current situations. Based up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hanging factors, several implications for developing the national collection for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were suggested.

키워드: 국가도서관, 장서개발정책, 호주국립도서관, 네덜란드국립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 National Library of Korea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swiss\_01@naver.com / ISNI 0000 0005 1377 482X)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kchung@ewha.ac.kr / ISNI 0000 0000 8261 5367)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5년 4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25년 5월 2일 게재확정일자: 2025년 5월 21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9(2): 73-102, 2025. <http://dx.doi.org/10.4275/KSLIS.2025.59.2.073>

\* Copyright © 2025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오늘날 국가도서관은 단순히 자료를 보관하는 것을 넘어, 연구와 교육, 사회통합과 문화 발전, 인류의 연결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국가의 지식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도서관은 국가의 지식문화유산, 도서관의 리더이면서 조정자 그리고 국가적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세 가지 지향점을 갖는다. 지식문화유산을 강조하는 국가도서관은 전통적 의미에서 장서 관리가 핵심이 되어왔고, 국가적인 조정과 리더십 및 서비스는 현대에 들어서면서 강조하게 되었다(Lor & Sonnekus, 1997). 다양해지는 도서관의 서비스 정책들도 근본적으로는 도서관의 장서개발이 중심을 잡고 있을 때, 비로소 도서관의 모든 서비스가 빛을 발한다. 그러므로 도서관의 장서개발은 한 부서의 정책이 될 수도 있지만 국가도서관의 경우, 그 영향력은 확장되어 한 나라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도서관 서비스의 시작이자 한 나라의 역사를 만드는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지침, 규칙, 규정, 법률, 원칙 또는 방향일 수 있다. 정책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가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해야 하는지를 말한다(Hussaini, 2020). 그리고 장서개발정책은 장기 목표, 의도, 기능 및 절차를 정의, 설명, 해석 및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규칙, 판단, 결정 및 지침의 권위 있는 공식 진술로 집단이나 조직의 활동을 안

내하고 규제한다(Patel, 2016). 그래서 장서개발정책은 도서관의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도서관의 목적은 장서개발정책의 방향과 틀, 그리고 범위를 결정한다(장혜란 외, 2009).

국가장서는 한 국가에서 발행된 모든 종류의 출판물과 문헌을 수집, 보존하는 체계적인 컬렉션으로 해당 국가의 지적, 문화적, 역사적 기록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자료이다. 한국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내외에서 생산 유통되는 각종 자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 보존하는 장서로 이는 국가장서에 해당된다.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은 IFLA에서 제안하고 있는 장서개발정책 지침에 따라 비교적 충실한 지침서를 가지고 있는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을 장서개발정책에 잘 반영하고 있는지 진단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과 직원과 규모가 비슷하면서도 디지털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범사례로 뽑히고 있는 호주국립도서관과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장서개발정책의 핵심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도서관의 변화를 도모하는 장서개발정책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1.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호주와 네덜란드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파악하고 국가장서개발에 있어서 핵심요소를 제시하여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그에 따른 장서개발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첫째, 문헌조사와 기관 공식 보고서, 전략 문서, 관련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교 분석하였다. 네덜란드국립도서관과 호주국립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과 관련된 공식 문서, 학술 보고서, 도서관 웹사이트 콘텐츠, 이메일 인터뷰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였으며, IFLA에서 제안하고 있는 장서개발정책 지침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과의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IFLA 모범사례로 언급되는 빈도가 높은 선진국 중에서도 디지털시대의 출판 변화를 선진적으로 반영하여 상세히 발표한 국가들로 호주와 네덜란드를 선정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셋째, IFLA에서 제안하고 있는 장서개발정책 지침을 비교대상국들의 장서개발정책의 각 요소로 분석하였다. 비교 항목은 국가도서관의 사명과 책무, 조직과 인력, 예산과 통계, 장서개발정책의 원칙과 기본 방향, 수집 우선순위, 디지털자료의 수집, 보존과 디지털화, 납본 등으로 구분하여 홈페이지와 전략계획보고서 등에서 도출하였다. 또한 관련 내용의 추가적인 확인을 위해 호주국립도서관과 네덜란드국립도서관 장서개발 담당자들과 메일을 통한 서면 질의로 내용을 보충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장서개발정책에 반영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1.3 선행연구

우선 국가장서개발정책에 관한 연구로 장혜란 외(2009)는 우리나라와 주요선진국의 국립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

로 우리나라 국가장서 구축을 위한 기본모형을 도출하였다. 윤희윤과 장덕현(2010)은 주요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분석하여 구성체계, 구조적 및 내용적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서문, 장서개발의 대상, 주제, 방법, 장서개발의 우선순위와 기본원칙, 장서개발 기본지침, 주제별 집서수준 지침, 보존 관리 및 제적·폐기 지침, 협동장서개발 전략, 장서개발정책의 관리주체 및 개정주기로 구성된 국가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모형을 제시하였다.

국내 장서개발정책에 관한 보고서로, 윤희윤 외(2013)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에 대한 연구에서 장서를 집중적 및 전략적으로 개발·보존하고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여 정체성과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장서개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지연과 김기영(2014)은 경기도대표도서관의 핵심 업무인 도차원의 종합적인 장서개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서개발정책안을 제안하고 수집된 정보자원을 효율적인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서고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윤희윤 외(2017)는 도서관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정책정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형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 수집방법, 자료유형, 주제, 보존·관리 및 제적·폐기 등으로 세부 지침을 제시하였다. 윤희윤 외(2019)는 서울시도서관을 위한 장서개발정책 모형을 기본모형, 운영주체별 모형, 연계·협력 모형, 공동보존 서고 모형, 각종 세부지침으로 제시하였다.

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로 이란주(2005)는 사례조사를 통한 5가지 지침을 만들어 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성명서를 준비하는

우리나라 도서관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에 관한 연구로 윤희윤 외(2020)는 주요 선진국의 대도시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정책과 국내의 권역별 지역대표도서관 장서개발지침(안) 및 규정을 분석하였다. 장서개발의 중요성 인식, 미래지향적 사고, 전략적 진단 등을 전제로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한 후, 문서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본원칙과 구성체계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박윤서와 남영준(2024)은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밖에도 남태우와 김은주(2010)는 의학도서관 장서관리정책 사례 연구를, 최재황(2013)은 대학도서관의 참고 장서개발정책 기본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를, 장덕현 외(2014)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모형 연구를, 정은주와곽철환(2015)은 신학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를, 노영희와 노지윤(2021)은 법원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제안에 관한 연구를, 김보일(2024)은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장서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또한, 디지털 장서개발정책에 관해서는 유재욱(2003), 박희숙(2004), 이선희와 유수현(2008), 장덕현과 서태설(2009), 장덕현(2013), 노영희 외(2024) 등이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의 연구로 IFLA(2001b)는 도서관의 주요 업무는 관련성 있고 대표적인 정보 자원을 선택하고 유지, 관리하며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기술 발전으로 인해 도서관의 역할이 주로 소장에서 접근으로 이동하면서 수집 정책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Saponaro와 Evans(2012)는 장서개발정책의 가치와 기능을 장서의 특성과 범위 고지,

장서의 우선순위 고지, 기관의 우선순위 장서에 대한 사고 유지, 조직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책임의 정도 제시, 장서의 포함 및 배제에 대한 기준 확립, 단일 선정자 및 개인적 편견의 영향 축소, 신입직원을 위한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도구 제공, 시간 및 직원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보장, 이용자들의 불만에 대한 직원의 대처 지침 제공, 장서의 제적 및 평가 도구, 예산 배정의 합리화 도구, 홍보 역할 수행, 장서개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 수단 제공, 외부에 장서개발 목적에 대한 정보 제공, 이용자와의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수단 제공으로 정의하였다. Mir(2016)는 장서 개발이 도서관 이용자의 학습, 교육, 연구, 오락 및 기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관 컬렉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며 이 프로세스에는 현재 및 회고적 자료의 선택 및 선택 해제, 지속적인 수집을 위한 전략 계획 및 컬렉션을 평가하여 사용자 요구를 얼마나 잘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또한 Ravikumara와 Sawian(2016)은 장서 개발을 사용자의 요구 사항과 선택, 평가, 제거 및 리소스 공유의 모든 프로세스를 평가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았다. Sisimwo(2019)은 장서 개발 프로세스에는 사용자의 요구 사항 평가, 사용 통계 및 인구 통계적 예측 분석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유용한 장서를 계획하고 구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Okwu와 Echem(2019)은 장서개발정책이 도서관의 기존 컬렉션 범위를 정의하고, 자원의 지속적인 개발을 계획하고, 컬렉션의 강점을 파악하고, 선정 철학과 기관의 목표, 일반적인 선정 기준, 지적 자유 간의 관계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문서로 보았다. Hussaini(2020)는 적절

하고 균형 잡힌 도서관 자원을 보장하는 데 있어 장서 개발은 매우 중요하며 장서개발정책과 관행은 고객의 요구 사항에 따라 고객의 관심을 충족하는 편견 없는 장서를 개발하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도서관 이용자가 장서 개발 프로세스에 참여해야 하며 사서가 장서를 개발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서면 장서 개발 정책의 구현과 서면 문서는 항상 모기관의 사명과 비전의 변화를 처리하기 위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호주국립도서관 장서개발에 관한 연구로 Bode (2019)는 호주국립도서관의 Trove를 이용하여 19세기 호주 신문에 실린 소설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탐구하여 소설의 국제 유통과정을 밝혀내는 데 있어서 호주국립도서관 장서개발의 활용도를 설명하였다. 노영희 외(2024)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의 매체 플랫폼 기반 자료 수집 및 적용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외국 사례 중 호주국립도서관의 2022~2025년 디지털전략을 조사하였다.

네덜란드국립도서관에 관한 연구로 조현양 외(2010)은 국내외 전자책의 수집 및 보존기술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미래 전자책의 기술 진화에 대응한 도서관의 전자책 수집 및 보존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2018)은 국가도서관 장서 디지털화 및 디지털 보존에 관한 정책 사례 조사를 통해 모든 장서의 디지털화를 하고 있는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의 디지털화 정책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2023b)은 국내외 도서관의 현황, 관련 법제도, 온라인 자료의 유형 및 수집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실질적인 수집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과 네덜란드를 포함

한 주요국의 온라인 납본제도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장서개발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가나 지역의 지식문화유산의 전승과 이용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국가컬렉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전략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의 경우, 국가도서관이 도서관 사명과 디지털 시대의 기술변화와 함께 장서개발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있었다. 다만 외국의 국가장서개발정책의 변화나 동향에 대한 비교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국가장서개발정책의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장서개발정책의 지향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장서개발정책 및 지침의 구성요소

장서개발정책의 핵심적인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장서개발정책 지침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지침을 살펴 보았다.

### 2.1 IFLA 장서개발정책 지침

IFLA은 2001년 장서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실무자들의 지침을 마련하였는데, 지금까지 기본틀로 사용되고 있다. 이 지침에는 문서화된 장서개발정책이 필요한 4가지 이유와 컨스펙터스(Conspectus) 방법론을 활용하여 장서 개발 정책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IFLA가 제안하고 있는 장서개발정책 지침

의 구성요소에는 서문(Introduction), 일반진술 (General Statements), 서술적진술(Narrative statements), 주제프로파일(Subject Profiles), 장서평가방법(Collection evaluation methods), 장서수집수준(Collection depth indicators),

언어코드(Language codes-RLG), 언어코드 (Language codes-WLN), 정책 시행 및 검토 일정(Policy implementation and revision timetables)이 있다. 구성요소에 따른 설명과 포함요소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IFLA 장서개발정책 지침 구성요소

장서개발정책의 구성요소	설명	포함 요소
서문 (Introduction)	장서 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주된 이유는 도서관의 무분별한 자료 구매를 방지하는 것과 전자 자료는 모든 유형과 규모의 도서관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전자 정보 자료 선정에 대한 명확한 장서 개발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명 선언문/정책의 목적/정책의 대상 독자/지역 사회 또는 이용자 그룹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서관 장서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유형/장서 규모 (정기 간행물, 단행본, 전자 자료, 제공 언어 수 포함)/도서관이 다양한 유형의 정보 자료에 지출할 예산에 대한 자세한 예산 개요/장서 정책이나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 또는 비공식 협력 협정
일반진술 (General Statements)	소장 자료 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특징들 나열	현재 집중 조사 대상인지 또는 과거 수집 자료인지/자료유형(단행본, 정기간행물, 논문, 회색 문헌, 지도 등)/언어/형식(인쇄본, 비인쇄본 또는 전자 자료)/특별 재원(기부금 또는 기부금)/기증 정책 및 소장 자료 관리(제작, 폐기, 보존)에 관한 특별 정책/소장 자료의 규모/불만 처리 방식/"도서관 관리장전"과 동등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기타 관련 정책/의도적으로 수집하지 않는 주제 또는 영역 등 제한 사항에 대한 설명도 포함
서술적진술 (Narrative Statements)	각 기관은 고유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각 기관의 정책 진술 또한 고유해야 한다. 정책 진술은 해당 도서관과 해당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를 반영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술은 고유한 자료를 대표하고 특별 지침이 적용되는 특수 주제 또는 형식 컬렉션과 제외되는 형식에 대해 작성해야 한다.</li> <li>포괄 범위를 설명해야 한다(수집 또는 제외된 언어, 포괄된 지리적 영역 및 제외된 특정 영역, 지적 내용 및 출판일 측면에서 컬렉션이 포괄하는 연대기적 기간, 제외된 특정 기간).</li> <li>주제는 도서관의 분류 체계와 주제 포털(주제 기술의)에 따라 기술</li> <li>장서에 대한 책임이 있는 도서관 부서 또는 선정자.</li> <li>학제 간 관계, 컨소시엄 관계, 정보 접근 정책 등 유용한 지역 정보의 기타 범주.</li> <li>지역적으로 중요한 기타 요소.</li> </ul>
주제프로파일 (Subject Profiles)	장서 평가(collection assessment 또는 collection evaluation)를 기반으로 하며, 목표 달성 진행 상황을 반영하거나, 환경 변화에 따라 목표가 수정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가장 권장되는 제시 방식은 Conspectus 보고서(conspectus reports) 형태이며, 여기에는 모든 관련 장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Conspectus(컨스펙터스)란, 장서의 강점(strength)과 수집 강도(collecting intensity)에 대한 개요 또는 요약을 뜻하며, 주제(subject), 분류 체계(classification scheme), 또는 이 둘의 조합에 따라 배열된다. 또한, 자료 수집 수준 및 수집 언어에 대한 표준화된 코드(standardized codes)를 포함한다. 이러한 컨스펙터스는 도서관 장서 전체, 또는 협력망(consortium)이나 관계망(network)의 협력 장서개발 개요 또는 정책의 개요 역할을 한다. 도서관이 평가한 각각의 컨스펙터스 부문(division, 24개), 카테고리(category, 500개), 주제(subject, 4000개)에 대해 제공되어야 한다.
장서평가방법 (Collection evaluation methods)	장서 평가는 계획 수립, 자료 수집, 장서 수집 깊이 지표(또는 수집 수준) 및 언어 코드 부여 등의 여러 단계를 통해 수행된다. 이는 도서관 자원을 관리하고, 일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서평가의 판단</li> <li>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정도</li> <li>투입 가능한 인력 및 지원 자원의 수준</li> <li>평가 결과의 활용 목적(예: 도서관 운영의 어떤 측면에 사용될 것인가)</li> </ol>

장서개발정책의 구성요소	설명	포함 요소
	<p>적인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활용된다. 수집된 데이터는 이상적으로는 기존 장서의 강도와 깊이를 간결하게 보여주고, 이를 기반으로 수집 수준(collection levels)을 설정하는 데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 어떤 기법은 반드시 일관되게 사용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들이며, 어떤 기법은 특정 상황에서만 유용하고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떤 기법을 사용할지는 평가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p>	<p>b. 평가 기법의 두 가지 유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서 중심 기법(Collection-centered techniques) 정보 자원의 내용과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장서의 규모, 연령, 범위, 깊이를 외부 기준과 비교해 평가</li> <li>2. 이용자 중심 기법(Client-centered techniques) 장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사용의 효과성을 지표로 평가</li> </ol> <p>c. 장서 평가 기법</p> <p>정량적(quantitative), 정성적(qualitative) 평가 기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량적 평가 기법(Quantitative Measures) 장서의 규모, 연령, 이용도, 비용 등 수치 기반 데이터를 보여준다.</li> <li>2. 정성적 평가 기법(Qualitative Measures) 사서의 전문적 판단, 주제 전문가의 평가, 이용자 의견 등 주관적 평가를 포함한다.</li> </ol>
장서수집수준 (Collection depth indicators)	<p>장서 수집 깊이 지표(collection depth indicators) 또는 수준(levels)은 도서관의 수집 활동과 목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숫자 값이다. 이 지표는 장서관리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재장서수준 (current collection level)</li> <li>2. 자료구입에 대한 약속 (acquisition commitment)</li> <li>3. 장서 목표(collection goal)</li> </ol>	<p>장서수집수준정의</p> <p>0 : Out of scope(수집 대상 아님)</p> <p>1 : Minimal information level(최소한의 정보 수준)</p> <p>2 : Basic information level(기초 정보 수준)</p> <p>3 : Study or instructional support level (학습 또는 교육 지원 수준)</p> <p>4 : Research level(연구 수준)</p> <p>5 : Comprehensive level(포괄적 수집 수준)</p>
언어코드 (Language codes-RLG)		<p>E : 영어 자료가 대부분이며, 외국어 자료는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p> <p>F : 영어 자료 외에 선택된 외국어 자료도 일부 포함된다.</p> <p>W : 적용 가능한 모든 언어로 된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며, 언어에 따라 자료를 제한하는 계획적인 결정은 없다.</p> <p>Y : 자료는 주로 한 가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의 토착어 (vernacular)로 된 자료 수집에 중점을 둔다</p>
언어코드 (Language codes-WLN)		<p>P : 해당 국가의 주요 언어 자료가 대부분이며, 그 외 다른 언어 자료는 거의 없거나 없음</p> <p>S : 주요 언어 자료 외에, 일부 선택된 다른 언어의 자료도 포함됨</p> <p>W : 다양한 언어로 된 자료가 폭넓게 수집됨</p> <p>X : 해당 국가 및 도서관의 주요 언어가 아닌, 하나의 특정 외국어로 된 자료가 대부분임</p>
정책시행 및 검토일정 (Policy implementation and revision timetables)	<p>정책의 실행 절차, 개정 일정, 기타 공식 승인 관련 사항을 설명하며, 통제(control) 개념을 도입한다.</p>	<p>a. 통제(Control)</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향후 자료 구입 시, 장서개발정책이 정기적이고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li> <li>2. 상시 주문 및 정기구독을 재검토하며, 현재 정책 기준을 기존 장서에도 소급 적용하여, 개정된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는 보존서고 이관 또는 제적을 고려한다.</li> </ol> <p>b. 개정(Revisio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책 문서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불충분한 부분을 확인하고, 새로운 수요나 최근 변화 사항(예: 예산 삭감, 새로운 교육과정 등)을 통합한다.</li> </ol>

출처: IFLA(2001a)



〈표 2〉 장서개발지침의 공통요소 비교

IFLA 지침	국립중앙도서관 지침	비고
서문	장서개발지침의 기본방향(사명과 책무, 목적)	사명 선언문/정책의 목적/장서 규모/예산
일반진술	장서개발 기본지침	수집에 관한 우선순위/납본/폐기·보존 등의 정책/디지털화 등의 디지털 정책
서술적진술	장서개발 세부지침	다양한 개별적 서술
주제프로파일	주제별 장서개발지침	다양한 개별적 서술
장서평가방법	집서수준의 기본지침	우선순위와 연계하여 비교 가능
장서수집수준	장서수집단계와 우선순위	우선순위나 전략 등에 포함
언어코드	주제별 집서수준 및 장서개발 세부지침	개별적 서술형이 많음
언어코드	주제별 집서수준 및 장서개발 세부지침	개별적 서술형이 많음
정책시행 및 검토일정	장서개발지침의 보완	시행일 등이 명시되어있거나 개별적 명시

### 3. 장서개발정책 사례조사

#### 3.1 호주국립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 3.1.1 서문

IFLA 장서개발지침의 서문에 포함되는 호주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이하 NLA)의 사명과 정책의 목적, 장서의 규모, 예산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NLA은 ‘오늘 호주 국민을 위해 이 나라의 과거, 현재, 미래와 연결해 주는 내일 중요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명 아래 기본 역할을 ‘Collection, Engage, Enable’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역할은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Strategic Vision 2025-2033”이라는 중장기전략에서 NLA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새로 정립된 호주의 국가문화정책인 리바이브 안에서 NLA이 만든 5가지 기본원칙은 원주민 우선주위, 모든 이야기를 위한 장소, 예술가 중심성, 탄탄한 문화기반 시설, 관객 참여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각각의 역할에 대한 우선순위와 전략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호주 및 호주 국

민과 관련된 문서 자료를 수집한다는 목적은 2016년부터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료와 해외 자료 수집, 2019년부터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인식, 2025년에는 호주 자료의 포괄적 수집이라는 세부 내용의 변화가 있어왔다. 전략적 우선 순위는 2016년부터는 수집, 연결, 협력에, 2019년부터는 투자수익에 대한 역량을 여기에 추가 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앞선 4가지 우선순위에 원주민을 첨가하였다. 이러한 세부 내용의 변화는 2018년도부터 신설되었던 National Collections Access 부와 2022년부터 신설된 Digital 부 등의 조직 변화와도 연결되어 있다. NLA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4-25 회계연도기준으로 1억 40만 호주달러로 추산된다. 납본을 통해 수집된 장서는 총 천만 점이 넘으며 여기에는 웹사이트 등도 포함되어 있다. 2022-23년에는 물리적 장서는 총 273 shelf km, 디지털 장서는 2.96 petabytes였다. 종합해볼 때 NLA은 디지털 환경에 대한 준비와 자국 중심과 공동체 중심의 수집 지향을 기본 목적과 전략에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1.2 일반진술

#### (1) 수집에 관한 우선순위

NLA는 호주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한 우선 순위 선별, 호주의 지역적, 전략적 위치를 반영한 수집, 디지털 자료의 수집 강화, 협력적 수집을 통한 국가 디지털 문화 네트워크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전략을 꾸준히 제시해 오고 있다. 수집전략은 「1960년 국립도서관법」, 「1968년 저작권법」, 호주 문화 정책 그리고 국립도서관의 원주민 문화 및 지적 재산권 의정서를 준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종합적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만,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포괄적 수집에 대한 어려움으로 선택적 수집을 하고 있다(NLA, 2024c). 우선순위는 시기에 따라 변화되었는데 2016년에는 인쇄본과 디지털 자료 모두를 대상으로 수집, 자카르타 사무소 운영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컬렉션 개발을 우선순위에 두었다가 2017년에는 호주의 디지털 다큐멘터리 유산에 대한 수집이 우선순위로 추가되었다. 2018년에는 호주의 사진, 사본, 구술사에 대한 구축과 다양성을 반영한 자료를 우선순위에 두었다. 이때부터 수집방식이 물리적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2020년부터는 해외 자료, 다양성을 반영한 자료, 웹 아카이빙 인프라와 소셜 미디어 수집 역량 강화 등의 디지털 수집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2021년에는 원주민, 중국인이나 피지인 커뮤니티 중심 수집과 호주인의 온라인 수집을, 2023년에는 인도네시아, 중국, 태평양지역 수집 확대, 2024년부터는 인도, 디아스포라 커뮤니티, COVID-19 팬데믹 구술사, 연방 선거 등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중

합하자면 2020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장서개발 정책은 납본을 통한 포괄적 수집, 호주 자료에 대한 대표적 수집, 해외 타겟 지역에 대한 선택적 수집을 원칙으로 국가적 중요 자료, 다양성 자료, 호주 원주민 자료들을 우선 수집하고 있다. 장서는 형식적으로 서적, 에페메라, 매뉴스크립트 및 개인 논문, 지도, 구술사, 악보, 시각 자료, 영화, 신문, 잡지·저널 및 진, 포스터, 사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제별로는 이민, 가족사, 공연예술, 건축과 디자인, 아시아, 원주민들, 환경, 정부와 정치로 분류하여 수집하고 있다.

#### (2) 납본

호주저작권법은 1968년에 영국의 저작권법과 영연방의 저작권법을 모델로 베른협약 등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미국과 체결한 호주·미국 자유무역협정에서 인정된 국제적 기준들을 반영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11). 호주에서 출판되는 모든 자료는 1968년 저작권법의 납본 조항에 따라 국립도서관에 한 부씩 납본해야 하는데, 2016년부터는 전자 출판물도 포함되었다. 납본은 도서, 그래픽노블, 만화책, 진, 신문, 잡지, 저널, 뉴스레터, 지도, 악보, 단독 또는 연례보고서, 정부간행물, 웹사이트를 포함한 모든 호주 출판물에 적용된다. 회의록이나 강의 노트 등 필요하지 않거나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자료도 있다. 디지털 자료는 호주의 국가 전자 납본 시스템인 National edeposit(NED)을 통해 납본되며, 납본된 자료는 Trove를 통해 약 3개월 내에 목록화되어 공개된다. 2024년에 개정된 호주의 「저작권법」에서 국립도서관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령 195CA

에 따르면, 호주에서 특정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 작품을 출판하는 사람은 해당 작품의 사본을 국립도서관에 제출해야 하며 국립도서관은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한 작품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도 195CB 도서관에 배달할 특정 자료의 사본, 195CC 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자료의 사본 요청, 195CD 도서관에 자료의 전달, 195CE 국립도서관 자료에 대한 의미, 195CF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의미, 195CG 침해 통지, 195CH 주 및 준주 법률과의 관계, 195CJ 입법문서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규정 위반의 경우 10 페널티 유닛을 벌령으로 정하고 있고 수집 자료 규정에 웹사이트, 웹 페이지, 웹 파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NED를 통해 납본하면 납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만 주나 준주의 법률에 따라 해당 주나 준주의 도서관에 납본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3) 보존

NLA는 보존을 위해 물리적 및 디지털 자료에 대해 보존 처리, 디지털 접근 보장, 장기 디지털 형식으로서의 재포맷, 마이그레이션 및 갱신, 파생 사본 생성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NLA는 컬렉션 보존을 위해 전략적이면서도 기업적인 관점에서 위험 관리 체계와 보존 활동의 우선순위 등을 프로그램화하고 있다. NLA의 보존에 관한 고려사항에는 예상 수명 주기, 대체물의 가용성, 현재 및 미래의 사용, 상태, 중요성, 가용성을 포함한 운영 맥락 등이 있다. 보존정책은 3년마다 검토하며 NLA는 보존이 본질적으로 컬렉션 유지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고, 수집 단계에서부터 보존 규모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

### (4) 디지털 정책

NLA는 2000년대 초반부터 모든 형태의 소장품을 디지털화를 해왔다. 호주 국립, 주 및 준주 도서관들이 신문과 관보 자료의 공동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구축된 Trove 플랫폼은 현재는 디지털화 자료뿐만 아니라, 호주 전역 900여 개 기관-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언론 기관, 정부 및 지역 공동체 조직-의 디지털 컬렉션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Trove로 검색할 수 있는 자료는 디지털 출판물, NLA의 디지털화 자료, 호주 웹 아카이브 콘텐츠, 그리고 메타데이터만 제공되는 기록 등이다. NLA의 디지털화 정책에는 「국립도서관법」(1960), 「호주국립도서관 기업 계획」(2019-2023), 보존 정책, 디지털 보존 정책, 그리고 공공 및 민간 디지털화 파트너십을 위한 NSLA 원칙(2019년 6월)이 반영되었다(NLA, 2020a).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Strategic Vision 2025-2033」에서는 디지털 전략을 최우선 전략으로 보고 있으며 진행 중인 사업으로 필기 텍스트 인식 시스템 구축이 있다.

호주 웹 아카이브는 특정 Twitter 계정을 수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셜 미디어는 포함하지 않고 매년 호주 도메인 웹사이트를 대규모로 수집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23b). 수집 대상에는 웹사이트, 웹페이지, PDF 등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문서가 포함되며, 현재는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사이트도 검색이 가능하다. 스냅샷으로 저장하며 주제나 이벤트별로 선택적 수집을 하며, 웹 도메인은 로봇 기술을 사용하여 .au 도메인 공간 전체를 크롤링하고 수집하며 해당 자료들은 Trove로 검색된다(NLA, 2024a).

### 3.2 네덜란드국립도서관

#### 3.2.1 서문

네덜란드국립도서관(Koninklijke Bibliotheek, 이하 KB)의 사명과 정책의 목적, 장서의 규모, 예산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더욱 똑똑하고, 더욱 기술적이고, 더욱 창의적인 네덜란드라는 사명과 함께 네덜란드 출판물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사람이 읽고, 배우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에 대한 가치, 디지털 최우선, 네트워크에서 생각하기를 3가지 원칙으로 두고 있다.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은 이러한 목적과 원칙에 따라 신뢰성, 통합, 개방성, 혁신성, 영감을 핵심가치로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지지한 17가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전략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KB는 문해력과 접근성을 기본 목표로 2019-22년에는 과학, 유산에 대한 목표에서 2023-26에는 학술연구와 산수력, 디지털 역량 등으로 목표의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전략적 우선순위도 2019-22년에는 글이나 언어에 대한 인프라, 네트워크 개발에 두었던 것이 2023-26년에는 독서와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와 발견, 지속 가능한 접근으로 변화되었다. KB는 독립적인 행정기관(zelfstandig bestuursorgaan, 이하 ZBO)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부서별 업무가 아닌 업무당 조직을 개별적, 수평적으로 두고 18개의 부서를 두고 있다. KB의 2023년 총예산은 €127,709,000이며 이중 독서와 디지털 리터러시에는 €43,200,000, 연구 및 발견에는 €7,429,000, 지속 가능한 접근에는 €22,822,000, 정보기술에는 €23,157,000, 조직 및 개발에는 €31,099,000이 배정되었다. 약 121km에 달하는 도서, 신문,

잡지를 보관하고 있으며, 2만 개가 넘는 웹사이트를 소장하고 있다. KB의 목표는 모든 간행물을 디지털 방식으로 국립도서관 컬렉션을 형성하는 것이며 먼 훗날 무엇이 중요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보존하려고 한다. KB의 장서 수집은 과거의 부족했던 부분과 미래를 연결하고 현재 이용에 장서개발의 원칙을 기반으로 최대한 다양성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종합해볼 때, KB는 도서관 규정 시스템 법과 고등 교육 및 연구법,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등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역할, 교육적 역할, 공공의 역할, 국가적 의미 등에 충실한 문해력, 디지털 능력, 정보 접근성,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KB, 2024a).

#### 3.2.2 일반진술

##### (1) 수집에 관한 우선순위

KB는 컬렉션을 일반컬렉션과 특별컬렉션으로 나누고 있는데, 일반컬렉션은 가능한 한 많은 출판물을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도서, 신문 및 정기간행물과 네덜란드 웹 도메인에 속하는 웹사이트, 그리고 네덜란드 학술 출판물이 있다. 도서, 신문 및 정기간행물 같은 경우, 지침이 없었던 1974년 이전이나 그 이후 기간 동안 수집의 간극이 있다. KB의 웹 컬렉션은 2022년 디지털 컬렉션으로는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에 의해 지정되었다. 네덜란드의 학술 출판물은 2003년부터 국제 학술 출판사에서 기사를 수집하여 보관해서 현재는 접근할 수 없는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만 제공하는데 Springer, Blackwell 및 Sage 등의 출판물이 포함된다.

특별컬렉션은 원고 자료, 인쇄 작품, 디지털

출판물 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들로 1549년 이전과 1550년~현재까지 중세 사본, 1450~1800년경의 초기 인쇄된 책, 1801년~현재까지의 특별 인쇄 작품, 아동 도서, 웹 고고학과 디지털 시티, 소셜 미디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컬렉션은 시장 가치, 희소성, 미디어 출판 날짜 및 장소, 물리적 및 내재적 특성, 상태, 서지적 및 연구(역사적, 문화적 또는 지적 가치)로 판별하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자료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우선순위로 수집되고 있다.

“KB publishes its 2024-2030 collection strategy”에 따르면 일반컬렉션은 대략 물리적 단행본 1,600,000책, 물리적 정기간행물 88,000책, 웹사이트 23,500개가 있으며 특수컬렉션은 중세 사본(1549년까지) 1500책, 중세 이후 및 현대 사본(1550년 이후) 145,000책, 초기 인쇄된 책(1450년경~1800년경) 200,000책, 현대 특별판(1801년부터) 50,000책, 쿠프만 컬렉션 10,300책, 아동 도서 225,000책에 이른다.

## (2) 납본

네덜란드는 대부분의 나라가 납본법에 따르는 것과 다르게 “자발적 보관소”를 운영하고 있다. 1798년 KB가 설립되었을 때, 국가의 모든 책을 수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KB는 주로 의원을 위한 도서관으로 기능했다. 1912년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과 사본이 분리되면서 출판사는 더 이상 사본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졌고 이로 인해 의무적 납본은 중단되었다. 이후 전문가들이 선별해서 수집하다가 1974년부터는 법적 의무가 없어졌다. 네덜란드어 지역에서 출판된 인쇄 및 디지털 출판물을 모으는 것을 기본으로 KB와 계약을 체결한 국제 또는 다

국적 출판사의 학술 전자 저널 및 전자책을 아카이빙 한다. 디지털 납본은 네덜란드 출판사가 KB에 처음으로 전자출판물을 납본한 1999년부터 시작되었다. KB는 규정에 따라 납본 비용을 상환받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개인 웹사이트와 온라인 자료들은 납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23b). 납본의 포함 기준은 종이 출판물과 디지털 출판물 모두에 적용된다. 디지털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디지털 자료가 없는 애서가 또는 예술가의 책과 같은 특별판, 동화책과 시에 대한 종이 출판물은 예외로 받으며 개별 논문은 수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KB는 디지털 출판물을 e-Depot의 보관 사본으로 영구적으로 저장하여 디지털 출판물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3) 보존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1995년부터 전자출판물의 장기 보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e-Depot를 만들어 디지털 객체에 대한 영구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을 시작하였다. e-Depot는 원래 네덜란드 국내 전자출판물 장기보존만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활용이 확장되어 국제 분야까지 포함했다(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09). KB가 관리하는 모든 디지털 출판물의 저장소인 e-Depot는 현재 4,000만 개가 넘는 출판물이 보관되어 있다. e-Depot는 디지털 책, 잡지, 신문은 물론 전자책도 저장하며 학술적인 기사부터 아동 도서까지 저장되어 있다. 일부 자료는 출판사와의 계약을 통해 들어오고, 일부는 직접 출판물을 납본할 수 있는 디지털 셀프 서비스 납본 포털을 통해 입수된다.

#### (4) 디지털 정책

KB는 디지털이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닌 핵심 사업의 일부이며 조직의 모든 면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장서 정책 전반에 디지털 우선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세 필사본 1,400여 점 등 특별장서의 디지털화, 웹 아카이브 정책을 통한 네덜란드의 포괄적인 모습을 미래에 전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 아카이빙 정책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독서 장려 프로그램이나 네덜란드 문학 디지털 도서관(Digital Library of Dutch Literature, DBNL), 디지털 접근성 강화, 디지털 문해력 개선 등의 활동도 하고 있다. KB는 자체 소장 자료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에 출간된 다른 자료들도 디지털화하여 Delpher와 DBNL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1900년 이전 자료는 85%, 1900~1939년 자료는 43%, 1940-1959년 자료는 14%, 1960~1999년 자료는 4%가 디지털화되어 있는 상태로 가장 오래된 자료는 상당수가 디지털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국가 Metamorfoze 프로그램을 통해 100개 이상의 기관 컬렉션에서 네덜란드 도서, 신문 및 정기 간행물을 디지털화했다. 향후 중세 사본 디지털화와 온라인 액세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KB는 사본과 초기 인쇄본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기 텍스트 인식(HTR)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이 외에도 컬렉션 항목의 디지털 표현에 물질성과 같은 측면을 포함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디지털 시설이나 서비스 등의 인프라 개선에 힘쓰고 있다. 종합해보면 KB는 장서 정책 전반에 디지털화, 디지털 서비스 정책, 지속 가능성을 위한 디지털 기술개발, 디지털 연구, 디지털 프로그램 등 조직과 활동 전반에

걸친 디지털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비교 및 주요 시사점

### 4.1 서문

국가도서관의 사명은 각 국가의 상황과 문화, 역사를 반영하면서 기본적으로 국가도서관이 지향하는 관점과 장서개발의 가치와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목표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지식 정보 전달이나 보전, 국내 도서관계에서의 역할, 선진화 등에 목표를 두었던 것에서 점차 시대가 변화면서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관심에서 디지털 시대에 대한 대비로 목표가 발전되어 갔다. 미래에 대한 대비, 미래와의 연결, 세계 속에서의 역할 등도 사명과 목표에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시각이 넓어지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대한 대비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B의 경우, 2019년부터 2026년까지의 목표를 비교해보면 문해력과 접근성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는 지속되고 있으며 2019년에 있던 과학, 유산에 대한 목표는 2022년에는 대신 학술 연구, 디지털 역량,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목표로 대체되어 변화되는 환경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LA 사명과 목표는 2017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국가적 관점에 대한 자료 수집이 강조되고 있다. 자국 중심의 수집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호주의 세계 속에서의 지리적·전략적 위치를 인식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디

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목표의 변화, 공동체 인식을 바탕으로 한 원주민 중심의 강화, 다양성 강화 등의 사명과 목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현재가 미래의 역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그 시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에 필요한 목표 제시가 비전이나 기본원칙에 잘 연결되어 있다. 또한 4년마다 제시하는 정책의 변화가 매우 세부적이고 자세한 목표의 변화가 보인다. 이는 정책과 전략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정책을 세웠다는 것으로 매우 계획적으로 장서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호주 사례와 같이 장서개발의 기본 방향과 원칙에 있어서는

기본 정책이 세워지면 이에 따른 단기와 중장기에 걸친 세부 전략과 그에 따른 기본 원칙을 정하고 충분한 설명과 예시가 있는 세부지침을 항목별로 자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장서 규모와 예산은 각국의 기준이 달라 명확한 비교는 힘들지만 인력 면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정규직 직원은 305명, KB의 정규직 직원은 372명, NLA의 정규직 직원은 365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조직 및 인력은 국가도서관의 규모와 목적에 따라 적정 규모로 구성되어야 하겠지만, 국가 장서 수집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조직 구조 아래 우수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표 3〉 참조).

〈표 3〉 장서 수집 방향성과 규모

구성요소	국립중앙도서관	네덜란드국립도서관	호주국립도서관
사명	국가식식문화유산의 전승하고, 국민의 지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며, 국가 및 세계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한다.	더욱 똑똑하고, 더욱 기술적이고, 더욱 창의적인 네덜란드	오늘 호주 국민을 이 나라의 과거, 현재, 미래와 연결해 주는 내일 중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기본방향	5대 핵심가치: 1. 활용성 2. 신뢰성 3. 포용성 4. 전문성 5. 지속가능성	1. 사회에 대한 가치가 핵심이다. 2. 디지털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3. 네트워크에서 생각하기	국가문화정책 리바이브의 5가지 기본 원칙: 1. 원주민 우선주의, 2. 모든 이야기를 위한 장소, 3. 예술가 중심성, 4. 탄탄한 문화 기반 시설, 5. 관객 참여
원칙	세부원칙 • 국가장서는 현재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잠재적 이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다. • 장서개발은 포괄성을 추구하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 장서개발은 편향성을 최소화한다. • 자료를 선택할 때는 도서관과 담당자의 사상, 종교, 정치적 입장, 개인적 이해관계 등을 초월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한다. • 장서 구성의 체계성과 균형을 확립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핵심자료, 주변 자료, 학제적 자료 등을 골고루 수집한다. • 자료의 지적 수준을 기준으로 대중을 위한 일반적 교양자료부터 연구집단을 위한 전문 학술자료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수집한다.	일반원칙 1. 네덜란드에서 발행된 문서와 네덜란드에 관한 문서를 처리한다. 2. 수집하는 방식은 출판물화를 따른다. 3. 문화유산 기관 네트워크에서 수집한다. 가중요소 4. 완전성보다 반영과 대표성이 우선한다. 5. 취약성과 고유성이 우선시된다. 6. 다성음의 국립도서관 컬렉션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	Collect 1. 컬렉션에서 원주민 대표성을 강화 2. 다양성 표현을 늘림 3. 호주의 현대 출판물이 포괄적으로 수집되도록 출판사와 독립 출판 커뮤니티와 협력 4. 수집 및 보존 활동을 관리 Engage 1. 원주민 문화 및 언어적으로 다양한 지역 사회, 농촌 및 오지 지역 사회에 대한 디지털 홍보를 확대 2. 전시회를 활용 3. 원주민 작가와 창작가의 출판기록 이어감. 4. 모든 연령대를 위한 학습 프로그램

구성요소	국립중앙도서관	네덜란드국립도서관	호주국립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서개발의 궁극적 목적은 범국가적으로 현재 및 미래에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를 수집·제공·보존·전송하는 데 있으므로,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여 기술한 자료로서 납본수집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당해 지역의 대표도서관이 수집하도록 유도한다.</li> <li>국립중앙도서관 및 소속기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은 각 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별 역할에 따라 특성화 장서를 개발하고 수집한다.</li> <li>국가장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의 지식정보를 개발하여 국가 문헌으로 수집·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i> </ul>	사용 7. 컬렉션을 인간과 기계가 디지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8. 컬렉션의 품목은 추적이 가능하다. 9.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컬렉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을 통해 연구 및 학습 서비스를 강화  Enable 1. 갤러리, 도서관, 기록 보관소, 박물관과 협력하여 도서관의 Trove 전략을 구현. 2. 호주의 이야기를 보호하고 접근 가능하게 하여 호주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척. 3. AI를 포함한 신기술을 활용해 투명하고, 생각을 자극하고, 계몽적인 방식으로 호주 국민과 역사를 교류.
시대에 따른 방향성 변화 (2018-2025까지 사명과 목표)	지식에 대한 집중에서 점차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관심, 협력에 대한 관심 강화, 미래에 대한 대비, 디지털시대 준비, 미래를 잇는 역할로 변화되다가 2025년에 이르러서는 세계적 관점이 시작되었다.	문해력과 접근성이라는 기본적인 목표에 변함이 없으며 과학, 유산에 대한 목표에서 학술연구, 디지털 역량, 네트워크 활성화 등으로 변화되고 있다.	자국 중심의 수집을 기본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환경 인식과 공동체 인식을 통한 원주민 중심 등으로 풍성해지고 있다.
예산	93,023,000,000원(2025년)	€150,748,000(2024년) (원화 2,357억 원)	1억 40만 호주달러(2024-25년) (원화 약 899억 원)
장서 규모	오프라인 자료 14,680,730책 온라인 자료 20,478,575점(2024.12.)	장서 약 122km 디지털 객체 수 8,158,866 웹사이트 2만 개(2024)	물리적 장서 총 273 shelf km 디지털 장서 2.96 petabytes(2023)
직원 수(정규직)	305명(2024년)	372명(2024년)	365명(2024년)

출처: 국립중앙도서관(2023a), 국립중앙도서관(2025a), 국립중앙도서관(발행년불명c), 국립중앙도서관(발행년불명d)\*  
 NLA(2024d), NLA(2024b)\*, NLA(2025), KB(2018), KB(2024a), KB(2025), KB(2018),  
 \*2018-2025년 Annual reports 참조하여 재구성.

## 4.2 일반진술

### 4.2.1 수집에 관한 우선순위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우선순위에 대해서 보존수집(Archiving Collection), 완전수집(Perfect Collection), 혼합수집(Hybrid Collection), 보완수집(Back-up Collection), 분담수집(Sharing Collection)이라는 5가지의 수집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자료의 유형과 매체, 주제, 언어(국가), 기대수명에 따라 우선순위를 달리할 수 있으며 공통적 또는 선택적으

로 적용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23, 12). NLA은 포괄적 수집, 선택적 수집, 대표적 수집을 기본으로 각각의 자료유형이나 주제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4년마다 바뀌는 전략적 목표에 따라 우선순위도 달라지는데 2010년대 후반부터는 자카르타 사무실운영을 통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컬렉션 개발을 우선순위에 두었으며 2024년부터는 인도, 디아스포라 커뮤니티, COVID-19 팬데믹 구술사, 연방선거 등의 국가적 행사 수집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국가적 중요 자료, 다양성 자

료, 호주 원주민 자료들을 우선 수집한다. KB는 모든 장서를 수집한다는 기본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자발적 납본을 취하고 있어서 프랑스령일 때 납본법 존재 여부로 인한 자료수집의 간극이 있으며 식민지 자료나 기타 일부 자

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 각각의 자료의 수집상황에 따른 우선순위가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다. 일반컬렉션은 가능한 한 많은 출판물을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표 4〉 참조).

〈표 4〉 수집에 관한 우선순위

국립중앙도서관		호주국립도서관		네덜란드국립도서관	
보존수집 Archiving Collection	자료의 유형과 매체, 주제, 언어 등을 불문하고 지식 정보의 부존 자원화 및 선진국의 저작권 강화 전략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보존 기능을 가장 중시하여, 1차 자료 중심의 실물 수집을 극대화한다.	포괄적 수집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방식, 예를 들면 납본이 이에 해당된다. 1968년 저작권법에 따라 디지털 자료가 가능한 경우를 우선으로 하여, 호주에서 출판된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한다.	일반 컬렉션	여러 가지 설정된 기준과 기술적·재정적 가능성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출판물을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도서, 신문 및 정기 간행물과 네덜란드 웹 도메인에 속하는 웹사이트, 그리고 네덜란드 학술 출판물이 있다.
완전수집 Perfect Collection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국내 자료 수집의 완전성을 지향한다.				
혼합수집 Hybrid Collection	장서 개발의 중심은 인쇄 자료에 두되,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는 라이선스 비용, 접근·검색의 편의성, 요구도와 이용 가능성, 보존력 등을 고려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일반 자료와 온라인 자료를 혼합하여 소장 기능과 접근 패러다임의 균형을 추구한다.	선택적 수집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자료를 파악하고 수집하거나, 수집의 폭보다는 심층성을 우선시하는 방식이다. 국제 타깃 수집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호주 국민들에게 우리 지역과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인식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 선택적으로 국제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태평양 지역, 인도네시아, 중국, 더 넓은 세계 등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타깃 수집을 수행한다.		
보완수집 Back-up Collection	자료의 유형이나 주제에 따라서는 미납본 자료의 확인과 구입, 연속 간행물 결호의 보충, 훼손 자료의 수선·복원·교체·매체 변환 등을 통하여 보완한다.	대표적 수집	도서관이 특정 유형, 작가 또는 주제를 대표하는 관리 가능한 양의 자료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호주 수집을 예로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주민 중시, 문화적·언어적 다양성 존중, 호주의 커뮤니티 기록,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호주의 역할과 기여 강조, 환경과의 관계 중시, 농촌 등 외딴 지역의 이야기 전달 등이 있다.	특별 컬렉션	원고 자료, 인쇄 작품, 디지털 출판물 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이들의 조합이다. 시장 가치, 희소성, 미디어 출판 날짜 및 장소, 물리적 및 내재적 특성, 상태, 서지적 및 연구적 가치(역사적, 문화적 또는 지적 가치)로 판별하게 되며, 각각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분담수집 Sharing Collection	국가 수준의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 특정 주제 자료, 고가 자료, 희색 문헌, 온라인 자료 등을 분담 형태로 개발함으로써 예산 지출의 효율성 및 자료 내용의 중복성을 최소화한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2023a), NLA(2020b), KB(2024a)

이렇게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게 문화나 역사 규모에 따라 수집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기본적으로 수집 우선순위는 결정하는 데는 원칙의 모호함을 없애는 것이 포괄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장서개발을 할 수 있다. NLA처럼 수집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 배경이나 맥락 등 필요한 이유를 지침에서 충분히 다룬다면 장서개발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모호함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각각 자료유형에 따라 수집 방식이나 질과 양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경우와 같이 수집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대의 변화, 장서개발전략이나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은 국가 장서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우선순위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배경 설명과 적용 기준과 같은 자세한 세부사항은 국가 장서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다.

#### 4.2.2 납본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납본법과 납본법 시행령에 따른 법령에 따라 납본을 시행하고 있다. 대체로 형태나 매체에 따른 구분으로 자료를 구분하여 법령을 정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료 납본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법적으로 납본 제외 자료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그 대상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ISBN · ISSN · 납본 시스템을 통해 전자 납본할 수 있다. NLA는 납본 대상을 매체에 따라 구분하지 않으며, 호주의 9개 국립 · 주 · 지역 도서관의 협업을 통해 NED 온라인 납본 시스템으로 납본을 시행하고 있다. KB의 경우, 납본법 없이 자발적

인 납본을 유도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발적이긴 하나, 출판사 및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출판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디지털 형식이 없는 경우에만 인쇄본을 제출하고 있다. 이를 비교해 보면 <표 5>와 같다.

#### 4.3 디지털 정책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화는 고서나 고문서, 한글판 고전 소설, 관보 등의 특정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가 대부분 진행되었다. 코리아메모리, 대한민국신분아카이브, 주제별컬렉션 등의 아카이빙을 통해 디지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오아시스가 있으며 일부 정부 기관의 소셜 미디어를 수집하고 있다. KB는 Metamorfoze 프로젝트를 통해 희귀 자료와 역사적 문서를 디지털화하고 있다. 웹 아카이빙은 선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다양한 특별 웹 컬렉션(예: 블로그, 코로나 관련 콘텐츠, 폐쇄된 이전 홈페이지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 · 보존하고 있다. KB는 이러한 자료들을 특정 세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 기록으로 보고 있다. 그 외에도 적극적인 여러 디지털 정책들이 있다. KB의 2024~30년 컬렉션 전략을 보면 출판사의 전통적인 출판물 외에도 블로그,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수집함으로써 출판의 개념을 더 넓히고 있다. KB는 디지털 우선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반적인 시스템 · 서비스 · 기술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변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LA는 일반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수집 대상에 포함하지 않지만, 특정 트위터 계정은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NLA의 디지털 전략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수집하기 위한

〈표 5〉 납본 제도

구분	국립중앙도서관	호주국립도서관	네덜란드국립도서관
대상	- 도서, 연속 간행물, 악보, 지도 및 가제식 자료, 마이크로 형태의 자료 및 전자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관자료, 온라인자료는 제외. -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	-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 작품, 또는 이러한 작품의 편집물, 또는 이러한 편집물의 다른 판 - 온라인 자료 납본 대상	네덜란드에서 출판된 모든 출판물은, 디지털이든 인쇄본이든 저작물의 언어와 관계없이 모두 적격 대상에 해당한다.
부수 및 요건	a. 디지털 파일인 경우 - 보존용 복제에 동의한 경우: 2부 - 보존용 복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3부 b. 디지털이 아닌 자료 - 국가 등이 납본하는 경우: 3부 - 국가 등 외의 자가 납본하는 경우: 2부	- 자료전체의 사본 - 인쇄본 형태의 경우 최상의 상태의 사본	디지털 형식이 없는 경우에만 인쇄본을 제출한다.
제외자료	내용·형태상 통상적인 도서관 자료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자료/소장 자료의 복본 자료, 재쇄(중쇄) 자료/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단순 편집한 자료/공중 배포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한정된 집단만을 위한 자료/광고 상품 정보를 주로 게재한 자료/학교 등 공공기관 외에서 제작한 학습·수험·활동 관련 온라인 자료/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가 납본 제외 자료로 결정된 것과 같은 유형의 자료/그 외에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지정.	도서관에서 필요하지 않거나 선택적으로 수집되는 출판물	원칙적으로 개인 웹사이트와 온라인 자료들은 납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타 자료의 특성에 따라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납본기간	발행제작일 30일 이내	출판 또는 요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관장이 허용한 기간까지	자발적 납본
디지털 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전송 시스템으로 전송 (ISBN·ISSN·납본 시스템) - 디지털 파일을 저장 매체에 저장하여 송부 - 인터넷상 위치를 통지하고, 이에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	NED 온라인 납본 시스템	- 온라인 납본 - 출판사 또는 저작권자가 KB와 납본 계약을 체결하여 자료 제출
보상	정가(시가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심의를 거쳐 책정)	비용 본인 부담	금전적 보상은 제공되지 않지만 고가의 인쇄본에 대해서는 개별 협의가 가능하다.
처벌규정	정가(비매 자료의 경우 발행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10 페널티 유닛	자발적 납본

출처: 도서관법, 법률 제19592호., 도서관법 시행령, 법률 제34533호., Copyright Act 1968, No. 63., KB(2024a)

웹 크롤링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 데이터 소스와 브라우저 자동화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며, 현대 소셜 미디어 콘텐츠 수집을 위한 도구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AI), 머신러닝(ML), 클라우드 기반 기술로의 전환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있다(〈표 6〉 참조).

각국의 디지털 정책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수집 방침이다. 한국의 경우, 디지털 자료 수집 및 정책 수립에 있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국가 장서 개

〈표 6〉 디지털정책

구분	국립중앙도서관	네덜란드국립도서관	호주국립도서관
디지털화	고서, 고문서, 고지도, 교과서, 관보, 단행 자료, 독도 관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발간 자료, 신문화 대표 소설 약보, 연속간행물, 우수 학술도서, 인문과학 분야 박사학위 논문, 한글판 고전 소설, 신문 등	중세 필사본 1,400여 점 등을 포함한 특별 장서를 디지털화하고 있으며, Metamorfoze 프로젝트를 통해 희귀 자료 및 역사적 문서를 집중적으로 디지털화하고 있다.	NLA 자료의 디지털화 Trove
이카이빙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주제별컬렉션 코리아메모리	- 23,000개 이상의 웹사이트를 웹 컬렉션으로 보존 - 그중 하나인 'XS4ALL 홈페이지 웹 컬렉션'은 세계 최초로 '네덜란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웹 아카이브	웹아카이브호주(AWA) - PANDORA 아카이브: 선택적 수집으로 주제나 이벤트별로 수집 - 연방 정부 웹사이트 컬렉션 호주 도메인 하베스트(Australian Domain Harvest) 컬렉션
소셜미디어	오아시스(OASIS)를 통해 일부 정부 기관의 소셜 미디어를 수집	현행 법률과 자원 부족으로 인해, 이른바 '국가 도메인 크롤링'(네덜란드 웹사이트 전체를 인터넷상에서 자동으로 수집·보존하는 방식)은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률 개정 추진 중	특정 Twitter 계정을 수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셜 미디어는 포함하지 않고 매년 호주 도메인 웹사이트를 대규모로 수집
디지털 플랫폼	오아시스(OASIS)	Delpher	Trove
기타 디지털정책	AI-OCR 기술을 적용하여 근대 자료를 텍스트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클라우드소싱 기반 AI-OCR 플랫폼을 통해 이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개방·공유할 예정	- Solid(Social Linked Data) - 'DevOps' 방식을 채택 - 네덜란드 문학 디지털 도서관(Digital Library of Dutch Literature)	필기텍스트 인식 시스템 구축 (진행 중)

출처: 국립중앙도서관(2023b), 국립중앙도서관(발행년불명a), 국립중앙도서관(발행년불명b), 국립중앙도서관(2025b), KB(2024b), NLA(2024a)

발 정책의 거시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상황이다. 반면, 호주와 네덜란드는 디지털 자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수집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포괄적인 수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까지 디지털 자료나 소셜 미디어의 수집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나 포괄적인 수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법적 문제나 윤리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수집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네덜란드와 같이 출판물에 대한 범주, 용어의 정리와 더불어 전반적인 디지털 기술이나 서비스의 변화,

관련 법 연구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5.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개선방향

### 5.1 장서개발정책 관련 구성요소 비교·분석

IFLA에서 제안한 장서개발정책의 지침과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 그리고 호주와 네덜란드국립도서관 사례의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장서개발정책 지침 구성요소와 사례

IFLA 지침	국립중앙도서관 지침	호주국립도서관 사례	네덜란드국립도서관 사례
서문 (Introduction)	장서개발지침의 기본 방향 (사명과 책무, 목적)	사명과 목적	사명, 비전,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일반진술 (General Statements)	장서개발 기본지침	1. 우선순위 2. 기타정책: 전시된 소장품의 조명에 관한 정책 컬렉션 디지털화 정책 컬렉션 기술 정책 수집 재난 대책 수집 관리 및 보존 정책 폐기 정책 등	형식, 언어, 자료유형, 소장 자료 의 규모, 의도적으로 수집하지 않 는 주제 또는 영역 등 제한 사항에 대한 설명
서술적진술 (Narrative Statements)	장서개발 세부지침	해의 타겟 수집	포괄 범위 설명 지역적으로 중요한 기타 요소.
주제프로파일 (Subject Profiles)	주제별 장서개발지침	특별 주제에 대한 진행 사항이 명 시되어 있다. (*설명참조)	Conspectus에 대한 설명은 없으 나 다음성에 대한 목표 등 주제별 목표는 명시되어 있음
장서평가방법 (Collection evaluation methods)	집서수준의 기본지침 (통상 장서기술방법(Conspectus) 에 기초)	장서의 규모, 연령, 이용도, 비용 등과 관련된 수치 기반 데이터를 활용한 정량적 평가를 제시	장서의 규모, 연령, 이용도, 비용 등과 관련된 수치 기반 데이터 를 활용한 정량적 평가를 제시
장서수집수준 (Collection depth indicators)	장서수집단계와 우선순위	대표적, 선택적, 포괄적 수집 명시	형태 또는 주제별 우선순위와 제 외 대상에 대한 서술적 명시
언어코드 (Language codes(RLG))	주제별 집서수준 및 장서개발 세 부지침	언어별 우선순위 명시	언어별 우선순위 서술적 명시
언어코드 (Language codes(WLN))	주제별 집서수준 및 장서개발 세 부지침	언어별 우선순위 명시	언어별 우선순위 서술적 명시
정책시행 및 검토일정 (Policy implementation and revision timetables)	장서개발지침의 보완	정기적 개정과 정책 시행일 등 표시	정기적 개정과 정책 시행일 등 표시

\* 호주국립도서관의 장서 평가 방법인 Conspectus에 대한 설명은 2009년까지는 공개되었으나, 현재는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NLA과의 이메일을 통해 현재는 더 이상 듀이십진분류법(DDC)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답변만을 확인.

출처: 국립중앙도서관(2023a), IFLA(2001a), NLA(2020b), KB(2024a)

IFLA 장서개발지침을 기준으로 국립도서관 장서개발지침과 호주와 네덜란드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국가도서관으로서 장서개발정책의 모든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다만 기술을 할 때 호주와 네덜란드의 경우는 대부분 서술식 방식이고 한국은 개조식이다. 각국의 국가도서관은 모든 구성요소에 대해서 각각 중요시하는 항목에 대한 설명을 명시하고 있다. 여

기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을 구성요소별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서문

국립중앙도서관은 체계적이며 명확하고 간결한 서문에 사명과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 네덜란드 사례와 같이 IFLA의 전략계획

(2022-2028)에 포함되어 있는 UN의 17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해 도서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기본 원칙에 포함시킨다면, 세계적인 도서관 정책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 될 것이다.

#### 나. 일반진술

국립중앙도서관은 일반적인 장서개발정책과 더불어 폐기 정책이나 보존 정책 등도 기술되어 있지만, NLA의 사례와 같이 컬렉션 재난정책, 전시된 소장품의 조명에 관한 정책, 컬렉션 기술정책 등과 같은 기타정책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다. 서술적 진술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장서개발 세부지침이 수집방법별, 자료유형별로 구분되어 있다. 호주와 네덜란드는 지역적으로 중요한 기타 요소나 해외 수집에 관한 지정학적인 요소를 깊이 다루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도 동북아나 북한 자료 등의 세부 기술이 있으나 주요국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이 일반적인 주요 선진국을 지칭하고 있는데 호주나 네덜란드 사례와 같은 자국 중심의 명확한 우선순위 지역의 구분이 필요하다.

#### 라. 주제프로파일

국립중앙도서관은 주제별 장서개발지침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IFLA에서 권장하고 있는 Conspectus를 사용하고 있다. 호주와 네덜란드는 홈페이지나 문서상으로 명시되어 있

지는 않으나 특별주제에 대한 진행사항이나 다음성의 부족에 대한 명시나 설명이 상세하게 제시되어있다. 한국의 국가장서 수집의 진행사항이나 현재의 수집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피드백이나 성과 평가의 보완이 필요하다.

#### 마. 장서평가방법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평가방법은 집서수준의 기본지침에서 통상 장서기술방법(Conspectus)에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호주나 네덜란드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 바. 장서수집수준

국립중앙도서관은 최소수준, 기본정보수준, 학습교육지원수준, 연구수준, 포괄적수준으로 포맷별 및 특성별 결정 기준 과 주제별 및 매체별 집서수준과 그에 대한 세부기술까지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어 해외 사례에 비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 사. 언어코드

코드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제별 집서수준 및 장서개발 세부지침 지침과 호주나 네덜란드의 사례 모두 서술식으로 언어에 대한 우선순위가 명시되어 있다.

#### 아. 정책시행 및 검토일정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장서개발지침의 보완 항목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호주의 사례에서 성과 평가나 예산 설정에 있어서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에 따른 예산 확정 등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국립중앙도서

관도 체계적인 시스템화를 벤치마킹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 5.2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 성과 및 개선 방향

국립중앙도서관 2023년 연보에 따르면 장서개발과 관련 성과로 국가문헌의 포괄적 수집을 위하여 고문헌 수집 강화, 디지털화 등을 통한 서비스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으며 2022년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을 개정하였다고 나와 있다. 또한 포괄적 수집과 디지털 콘텐츠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전자책·전자저널·전자신문이었던 웹자료의 범위를 웹툰·웹소설까지 확대하고, 그 외 용어를 현행화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수집이나 보존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들이 있으나 호주나 네덜란드의 해외 사례와 같은 국가장서개발정책의 중장기 추진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이고 발전적이면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변화를 도모하는 면이 부족하다. 호주의 사례와 같이 성과에 대한 평가를 프로그램화하여 차년도 예산이나 계획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며 네덜란드와 같이 다음성이나 다양성이 부족한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따른 웹자료 수집의 변화가 보이긴 하였으나 아직까지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나 성과는 부족하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간다면 기술과 출판 환경 변화를 반영하면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한국의 고유한 지식문화유산을 전승시키는 국가장서로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 6. 결 론

본 연구는 호주와 네덜란드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이 향후 장서개발정책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호주와 네덜란드의 국립도서관은 디지털 시대의 흐름과 자국의 상황에 맞추어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빠르고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NLA는 모든 활동에서 국가적 관점을 강조하고, 목표를 공유하는 다른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호주의 다양한 문화와 유산에 대한 보존과 기록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부서에 따른 업무 분장이 아닌 정책에 따른 업무 분장과 명확한 성과 측정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의 수행을 하고 있었으며 호주만의 지리적·지정학적 상황을 감안한 집서수준으로 호주에 적합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또한 NED 온라인납본시스템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었으며, 과거와 현재의 모든 수집 자료가 Trove검색 시스템에서 검색·열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디지털보존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의 경우, 국가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임무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사명과 비전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을 통한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정책이 우선시되고 있었으며 네덜란드는 모든 장서를 수집한다는 기본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수집에 있어서 자발적 납본을 취하고 있어서 납본법의 유무에 따른 간극이나 식민지 자료, 기타 일부 자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부족한 경우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까지 갖고 있었다. 또한 e-Depot을 만들어 활용하고 네덜란

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자료의 보존이나 웹사이트에 대한 보존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이며 선도적이었다. 더불어 디지털 기술이나 관련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도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출판의 개념 자체를 바꾸려는 인식 등 도서관의 모든 면에 있어서 디지털 환경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은 벤치마킹할만 하다.

국립중앙도서관도 체계적이고 행정적인 조직이나 정책, 한국의 고유문화 전승을 위해 국가장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나 네덜란드같이 자국의 국제적인 위치에 따른 지정학적인 자료의 특성화 수집정책이나 디지털 자료의 급증에 따른 적극적인 수집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성과 평가와 예산 추정을 시스템화하여 장서개발정

책의 비전과 목표, 계획과 성과가 하나로 연결되는 효율성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국가도서관의 장서는 사회적 존재 가치를 정당화하고 이용자의 도서관 방문이나 온라인 접근을 유인하는 핵심요인이며 현재적 요구보다 중장기 이용에 치중하는 전반적 계획기준 및 실천과정이다(윤희윤, 2020). 따라서 국가장서개발원칙과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함께 국가가 처한 상황과 시대에 맞는 국가장서개발을 추구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국가장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급변하는 출판문화와 도서관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국가장서개발지침의 정기적인 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 한국의 독보적인 국가장서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국립중앙도서관 (2023a).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23b). 온라인 자료 수집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25a). 2025년 주요업무계획.

국립중앙도서관 (2025b. 1. 23.). 지성과 문화로 세계를 잇다.  
출처: <https://www.nl.go.kr/NL/contents/N50603000000.do?schM=view&page=3&viewCount=9&id=50243&schBdcode=&schGroupCode=>

국립중앙도서관 (발행년불명a). 국립중앙도서관 웹자원 아카이브 OASIS.  
출처: <https://www.nl.go.kr/oasis/>

국립중앙도서관 (발행년불명b). 디지털화 자료.  
출처: <https://www.nl.go.kr/NL/contents/N10200000000.do>

국립중앙도서관 (발행년불명c). 사명과 비전.  
출처: <https://www.nl.go.kr/NL/contents/N50111000000.do>

- 국립중앙도서관 (발행년불명d). 연보. 출처: <https://www.nl.go.kr/NL/contents/N50704000000.do>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09).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의 전자출판물 장기 보존 프로그램 e-Depot. 도서관연구소 웹진, 43.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운영과 (2018). 국가도서관 장서 디지털화 및 디지털보존에 관한 정책 사례 조사.
- 김보일 (2024).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장서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41(4), 1-22.  
<https://doi.org/10.3743/KOSIM.2024.41.4.001>
- 남태우, 김은주 (2010). 의학도서관 장서관리정책 사례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7(1), 79-102.  
<https://doi.org/10.3743/KOSIM.2010.27.1.079>
- 노영희, 노지윤 (2021).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제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4), 55-78. <https://doi.org/10.16981/kliss.52.4.202112.55>
- 노영희, 정영미, 손애경, 장인호, 차현주 (2024). 매체 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 및 적용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1), 193-214. <http://doi.org/10.16981/kliss.55.1.202403.193>
- 도서관법 시행령. 법률 제34533호.
- 도서관법. 법률 제19592호.
- 박윤서, 남영준 (2024).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공공도서관 사서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1), 47-67.  
<http://doi.org/10.16981/kliss.55.1.202403.47>
- 박희숙 (2004). 전문도서관의 전자자료 장서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35(1), 29-49.  
<https://doi.org/10.1633/jim.2004.35.1.029>
- 유재옥 (2003). 대학도서관의 디지털장서 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4(1), 123-140.
- 윤희운 (2020). 장서관리론 (제4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윤희운, 김중애, 오선경 (2020). 대도시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분석과 제언. 정보관리학회지, 37(3), 51-75. <https://doi.org/10.3743/kosim.2020.37.3.051>
- 윤희운, 장덕현 (2010). 국가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4), 107-122.  
<https://doi.org/10.14699/kbiblia.2010.21.4.107>
- 윤희운, 장덕현, 김신영, 오선경 (2017). 국립세종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11-1371546-000009-01). 국립세종도서관.
- 윤희운, 장덕현, 김중애, 오선경 (2019). 서울시 장서개발정책 수립연구(51-6113159-000009-01). 서울시.
- 윤희운, 장덕현, 이연옥 (2013).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 연구(11-1371100-000066-0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이란주 (2005). 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2), 203-224.
- 이선희, 유수현 (2008). 국내외 사례비교를 통한 디지털장서 개발정책 동향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4), 125-147. <https://doi.org/10.16981/kliss.39.4.200812.125>

- 이지연, 김기영 (2014). 경기도 대표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및 운영방안 연구. 경기도청.
- 장덕현 (2013). 대학도서관 전자자원관리정책 모형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4), 125-142.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4.125>
- 장덕현, 서태설 (2009). 디지털 장서개발정책 기본요소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3), 97-117.  
<https://doi.org/10.16981/kliss.40.3.200909.97>
- 장덕현, 이연옥, 윤희운 (2014).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모형 연구: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2), 179-203.  
<https://doi.org/10.16981/kliss.45.2.201406.179>
- 장혜란, 홍현진, 노영희, 오의경 (2009). 국가장서개발정책 기본모형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193-215. <http://dx.doi.org/10.4275/KSLIS.2009.43.4.193>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11. 12. 30.). 2011년 호주 저작권법. <https://www.iitp.kr/main.it>
- 정은주, 광철완 (2015). 신학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1), 101-134. <https://doi.org/10.14699/kbiblia.2015.26.1.101>
- 조현양, 장보성, 유보현 (2010). 전자책 아카이빙을 위한 협력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4), 161-178. <https://doi.org/10.14699/kbiblia.2010.21.4.161>
- 최재황 (2013). 대학도서관의 참고 장서개발정책 기본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1), 409-432. <https://doi.org/10.16981/kliss.44.1.201303.409>
- Bode, K. (2019). A world of fiction: Digital collections and the future of literary history.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Copyright Act 1968, No. 63.
- Hussaini, A. (2020).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the management of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in libraries. Middlebelt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8.
- IFLA (2001a). Guidelines for 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using the Conspectus Model. IFLA. Available: <https://repository.ifla.org/handle/20,500.14598/52>
- IFLA (2001b). IFLA/UNESCO guidelines for development of the public library service. IFLA. Available: <https://www.ifla.org/publications/iflaunesco-guidelines-for-development-of-the-public-library-service>
- KB (2018). Strategic Plan of the Koninklijke Bibliotheek, 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 2019-2022 Working with Words.
- KB (2024a). Strategie Voor De Vorming Van De Nationale Bibliotheekverzameling 2024-2030.
- KB (2024b, May 23). 50th anniversary of depository of dutch publications. Available: <https://www.kb.nl/en/blogs/50-jaar-depot-van-nederlandse-publicaties>
- KB (2025). Jaarverslag 2024.

- Lor, P. J. & Sonnekus, E. A. S. (1997). Guidelines for Legislation for National Library Services. Paris: UNESCO.
- Mir, F. M. (2016). Challenges and possibilities for collection development & management at Govt. Degree College Baramulla: An Experience at Library.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Research , 5(12), 3435-3444.
- NLA (2020a, January 01). Collection digitisation policy. Available: <https://www.library.gov>
- NLA (2020b).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 NLA (2024a, September 19). Australian web archive. Available: <https://www.library.gov.au/discover/what-we-collect/australian-web-archive>
- NLA (2024b, October 28). Annual report. Available: <https://www.library.gov.au/visit/about-us/corporate-information/annual-reports>
- NLA (2024c). Collecting Strategy 2024-2028.
- NLA (2024d).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Annual Report 2023-24.
- NLA (2025). Treasured: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Strategic Vision 2025-2033.
- Okwu, E. & Echem, M. (2019).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and user satisfaction in university libraries in Rivers State, Nigeria. Library Philosophy and Practice (e-journal), 2142. <http://digitalcommons.unl.edu/libphilprac/2142>
- Patel, S. (2016). Collection development in academic libra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8(7), 62-67. <https://doi.org/10.5897/IJLIS2015.0601>
- Ravikumara, S. & Sawian, E. N. (2016).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of the library and its relevance to the prescribed books in the syllabus: A study of St. Anthony's College. A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0, 198-203. <https://doi.org/10.5958/0975-6922.2016.00027.9>
- Saponaro, M. Z. & Evans, G. E. (2012). Collection Management Basics. (6th ed. ) Santa Barbara, CA: Libraries Unlimited.
- Sisimwo, J. (2019). Electronic resources and its application in collection development practices in academic libraries: The case of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airobi, Kenya.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ang, Durk Hyun & Seo, Tae-seol (2009). A research on the elements of digital collection

- development polic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3), 97-117. <https://doi.org/10.16981/kliss.40.3.200909.97>
- Chang, Durk Hyun (2013). A research on a model electronic resource management policy in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4), 125-142.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4.125>
- Chang, Durk-Hyun, Lee, Yeon-Ok, & Yoon, Hee-Yoon (2014). A study on a mode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libraries: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2), 179-203. <https://doi.org/10.16981/kliss.45.2.201406.179>
- Chang, Hye Rhan, Hong, Hyun Jin, Noh, Younghee, & Oh, Eui-kyung (2009). Developing a basic framework for the Korean national collection poli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4), 193-215. <http://dx.doi.org/10.4275/KSLIS.2009.43.4.193>
- Cho, Hyun-Yang, Jang, Bo-Sung, & Yoo, Bo-Hyeon (201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llaborative model for archiving an electronic book. *Journal of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4), 161-178. <https://doi.org/10.14699/kbiblia.2010.21.4.161>
- Choi, Jae Hwang (2013). A study on the primary parts of referenc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in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1), 409-432. <https://doi.org/10.16981/kliss.44.1.201303.409>
- Enforcement Decree of the Library Act. Presidential Decree No. 34533.
- Institute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 (2011, December 30) Australian Copyright Act. <https://www.iitp.kr/main.it>
- Jeong, Eun-Ju & Kwak, Chul-Wan (2015).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at libraries of theological universities. *Journal of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1), 101-134. <https://doi.org/10.14699/kbiblia.2015.26.1.101>
- Kim, Boil (2024). A study on collection development of local collection in the metropolitan representative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4), 1-22. <https://doi.org/10.3743/KOSIM.2024.41.4.001>
- Lee, Ji-yeon & Kim, Ki-young (2014). A Study on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and Operational Plan for the Gyeonggi Provincial Library.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 Lee, Lan-Ju (2005). A study of guidelines for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6(2), 203-224.

- Lee, Sunhee & Yoo, Suhyeon (2008). A trend study on the digita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through case comparis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4), 125-147. <https://doi.org/10.16981/kliss.39.4.200812.125>
- Library Act . Act. No. 19592.
- Nam, Tae-Woo & Kim, Eun-Choo (2010). A case study on medical library collection management polic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7(1), 79-102. <https://doi.org/10.3743/KOSIM.2010.27.1.079>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3a). *Collection Development Guidelines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3b). *A Study on the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Online Resource Collection*.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5a). *2025 Annual Work Plan*.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5b, January 23). *Connecting the world with intelligence and culture*. <https://www.nl.go.kr/NL/contents/N50603000000.doN50603000000.do?schM=view&page=3&viewCount=9&id=50243&schBdcode=&schGroupCode=>
- National Library of Korea (n.d.-a). *OASIS: Web archiving system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https://www.nl.go.kr/oasis/>
- National Library of Korea (n.d.-b). *Digitized resources*. <https://www.nl.go.kr/NL/contents/N10200000000.do>
- National Library of Korea (n.d.-c). *Mission and vision*. <https://www.nl.go.kr/NL/contents/N50111000000.do>
- National Library of Korea, Library Research Institute (2009). *The long-term preservation program for electronic publications at the 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 e-Depo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webzine*, 43.
- National Library of Korea. Collection Management Division (2018). *A Study on Policy Cases Related to the Digitization and Digital Preservation of National Library Collections*.
- Noh, Young-Hee & Ro, Ji-Yoon (2021). A study on the proposal of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of the Supreme Court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2(4), 55-78. <https://doi.org/10.16981/kliss.52.4.202112.55>
- Noh, Younghee, Jung, Youngmi, Son, AeKyoung, Chang, Inho, & Cha, Hyunju (2024). A study on the collection and application measures for media platform based material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5(1), 193-214. <http://doi.org/10.16981/kliss.55.1.202403.193>

- Park, Hee-Sook (2004). A study on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of electronic materials of special libraries.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5(1), 29-49.  
<https://doi.org/10.1633/jim.2004.35.1.029>
- Park, Youn Suh & Nam, Young Joon (2024). A study on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ion public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focusing on the perceptions of public library librarian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5(1), 47-67.  
<http://doi.org/10.16981/kliss.55.1.202403.47>
- Yoo, Jae-Ok (2003). A study on digita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of academic libraries. *The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4(1), 123-140.
- Yoon, Hee-Yoon & Chang, Durk Hyun (2010). A study on the formulation of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a national library. *Journal of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4), 107-122. <https://doi.org/10.14699/kbiblia.2010.21.4.107>
- Yoon, Hee-yoon (2020). *Collection Management Theory*. (4th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Yoon, Hee-yoon, Chang, Durk Hyun, & Lee, Yeon-ok (2013).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11-1371100-000066-01).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 Yoon, Hee-Yoon, Chang, Durk Hyun, Kim, Jong-Ae, & Oh, Sun-Kyung (201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llection Policy for the Seoul Metropolitan Library(51-6113159-000009-01).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Yoon, Hee-Yoon, Chang, Durk Hyun, Kim, Shin-young, & Oh, Sun-kyung (2017). Establishment of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the National Sejong Library(11-1371546-000009-01). National Sejong Library.
- Yoon, Hee-Yoon, Kim, Jong-Ae, & Oh, Seon-Kyung (2020). Analysis and implication of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of public libraries in major ci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7(3), 51-75. <https://doi.org/10.3743/kosim.2020.37.3.051>